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24호 2015. 1. 30.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이철우/편집인:오경애/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전화:788-2371~6, 788-3081~6, FAX:788-3571

이사장 신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조영기입니다.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과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는 말로 인사를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진취적인 푸른색이 온화한 양을 만나 평화로운 행운을 불러오는 길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평화롭고 기쁜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은 국가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해였지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협회의 주요 행사인 '속기학술세미나'도 연기를 거듭하여 7월에 개최되었는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속기경기대회'도 있었고,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에도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협회에서는 새로운 사업도 수행했지요. 국회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속기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업무를 우리 협회에서 위탁받아 51개 지방의회, 80명의 속기사를 대상으로 국회의정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협회의 정기 발간물인 '속기계'가 제50호를 맞이하여 특집으로 발간되었으며, '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고 국립한글박물관에 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속기 자료를 기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속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새로운 일을 발굴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집행부는 제헌국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사의 현장에서 이룩한 속기문화의 공적을 잇고 또한 국회·법원·지방의회·속기업계 등에서 속기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협회 가족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요. 이사장이나 집행부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질책이나 충고가 우리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원하는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조영기

이사진 신년사

총무·재정
이사
이동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정이사 이동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벌써 저물고 설레는 마음 가득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2014년 협회에서는 속기경기대회 개최, 속기계 발간, 2014년도 인터스테노 참가 등 그동안 죽 있어 왔던 사업을 개최·참가하였고 회원 여러분의 관심 속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취업설명회를 겸한 ‘속기와 기록문화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부천대(비서과)와 산학협동협약서 체결 등을 통해 협회가 큰 틀에서 속기계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과 타 분야와 상생하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숨 가쁘게 지나가고 올미년 청양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성격이 온순하고 또한 온순한 성격 덕에 이해심과 배려심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양의 온순함과 성실함 그리고 이해심을 거울삼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목표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2015년 올미년의 둥근 해가 뒀습니다. 이렇게 협회 소식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도 벌써 3년째가 되네요. 회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2014년은 4월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등으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예정되었던 각종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우리 협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속기학술세미나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7월에 최소한의 규모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았는데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내실 있는 학술세미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또 청양의 해라고 하네요. 청을 뜻하는 푸른색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해인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회원
이사

관한기



**홍보이사
오 경 애**

오경애 홍보이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건 사고가 참 많았죠. 가슴 먹먹하고 마음 아팠던 일들 다 뒤로 하고 올 한 해는 좀 더 따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협회에서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교육을 국회의정연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회 속기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속기를 업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넓혀 가는 가교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2015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이사 최윤정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늘 그럴듯 과거를 돌아보면 반성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작년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었고 국고 지원금의 축소 등으로 국제부 활동이 대폭 줄었던 한 해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회 부회장님과 총무이사님을 비롯해서 열여섯 분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협회 활동에 대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7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 총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한 해도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두루 평안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제이사
최 윤 정**

**자격심사·
연구위원장
이 순 영**

2015년 1월 1일 우리 가족은 선유도에서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새해 첫날에 뜨는 해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말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존재이기도 하더군요.

저의 새해 소원은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사랑이 있고, 행복이 어우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국회 의정기록과이든 대한속기협회이든 말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소원 이루시고, 올미년 내내 행복하십시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10문 10답

질문



김민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3. 당신의 이상형은?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6. 국회 합격 소감은?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미’.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점은 부지런함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목표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사진을 정리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 특별한 날에는 사진도 붙여 넣고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볼 때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3. 겸손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치고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만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대학교 졸업 후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속기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속기를 시작하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일반 회사에 다녔을 것 같습니다. 6.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한 만큼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합격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7. 제가 공부하는 동안 매일 도시락을 싸 주신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8. 1년이 지난 후에도 한참 배워야 하겠지만 우선 1년 동안 국회 생활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9. 백지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10. 요즘 아침마다 도서관이 아닌 국회로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국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	--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손 아 영

1. ‘소(牛)’. 저는 소띠이며 소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저는 얼핏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묵묵히 제가 맡은 일을 똑심 있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소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2.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 우주 관련 서적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인터스텔라’도 무척 감명 깊게 관람했습니다.
3.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살집이 약간 있는 사람이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
4. 대학교 졸업 후 실시한 적성검사서 속기사가 일순위에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녔던 회사를 계속 다녔겠지만 속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이 길을 계속 기웃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늦었지만 제가 가장 잘하고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 국회 속기사가 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은 느낌입니다.
7. 수험 기간 내내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남동생,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저 스스로에게도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8. 작년에는 저의 시험 때문에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추억을 만들어 오고 싶습니다.
9. 저에게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따끔한 질책과 도움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가르침들을 거름 삼아 훌륭한 속기사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 수성은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행성으로 신의 소식을 빨리 전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 속기사로서 회의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선후배들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 의정기록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문 10답



정 은 일

1. ‘마라톤’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경우가 많았지만 1등을 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국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2. 운동은 주로 탁구를 즐겨 하고,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친구들과 야구장에 가서 경기도 보고 응원도 하면서 충전하였습니다.
3. 어른들에게 잘하는 사람,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 잘 웃어 주는 사람, 외모적으로는 눈이 작고 웃을 때 반달눈(?)이 되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4. 속기에 관심이 있던 친구가 학원에 상담 받으러 갈 때 같이 갔다가 등록을 하게 됐고, 이후에 친구는 속기를 그만두고 혼자 학원에 남아서 연습하였습니다.
5. 군 제대 후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어진 것이 속기였습니다. 국회 속기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속기를 통해 취직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속기사가 아닌 저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취업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6.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합격하고 나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어렵게 공부했던 시기들도 저에게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고,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 주고, 조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8. 많은 선배님들과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고, 빠르게 적응해서 팀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도움이 되는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9. 짧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에게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배워서 저 또한 나중에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0. 가르쳐 주시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항상 생각하고 먼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님들에게 믿음을 주는 속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최수미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만이’, 집에서 세 딸 중 첫째이기도 하고, 어딜 가든 만이인 걸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꽃꽂이 몇 달 배우다 그만뒀는데 다시 배우고 싶어요.

3. 당신의 이상형은?

배려심이 깊고 자상한 사람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 속기를 알게 되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나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6. 국외 합격 소감은?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속기사가 돼야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이미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 첫 월급으로 연말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가 있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은 업무를 정확하게 익히고 국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봄날의 피크닉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9. 선배님들께 한마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착하고 일 잘하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 주세요!

10문 10답



조지웅

1.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 오랫동안 국회속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국회속기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부를 하면서 고향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아침 20km, 저녁 20km, 하루에 40km씩 자전거를 탔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지만 조만간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타고 싶습니다.

3.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4. 군대에 속기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속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키보드 타이핑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냥 남들보다 타이핑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대 후 속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 제가 사법대를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어 있거나, 전산직 공무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6. 오전 중에 발표가 나지 않아서 인사과에 전화해서 여쭙 봤더니 오후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때 옆에 앉아 있던 동기가 오빠 됐다고 말해 줘서 그때 합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합격했다는 기쁨보다는 계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7. 엄밀히 따지면 첫 월급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받는 첫 월급은 4년 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면서 실수령액은 훨씬 줄어들었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가 보고 싶습니다.

8. 거창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 훌륭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남들보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열심히 말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국회를 준비하는 속기사 분들에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 소식

■ 제221차 이사회는 2014년 6월 5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2014년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해서 총무·재정이사회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3항 2014년도 인터스테노 준비의 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부의안건 1항을 의결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4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회원이사로부터 2014 속기학술세미나 일시, 장소, 강사, 소요예산 등 계획(안)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세미나 참가인원이 예산 축소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30~40명 줄어든 100여 명 정도로 예상되며 주제 발표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4년도 인터스테노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국제이사로부터 2014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 관련 보고를 받고 기간, 장소, 참가인원, 연회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홍보발간사업의 건을 상정하여 홍보이사로부터 소식지 발간과 속기계 제50호 발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부의안건 제5항 속기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제22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제222차 이사회는 2014년 9월 17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이동준 이사장직무대행의 안건 설명을 들은 후 의견 청취 및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 의정기록1과장인 조영기 과장은 그동안 협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만큼 조영기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자는 김점동 이사의 동의에 이어 재청, 삼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업무 위탁의 건을 상정하여 총무·재정이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우리 속기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을 협회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데 모든 이사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참신한 교육일정 필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법원·검찰 속기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제223차 이사회는 2015년 1월 16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제48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총회 개최 일시·장소에 대해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논의 후 2015년 1월 30일(금)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회에 부의될 안건으로 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 선출의 건이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4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재정이사로부터 2014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김란희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협회 예산이 지역전통문화과에서 국어정책과로 이관되고 2015년도 정규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논의 후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법원, 검찰, 지방의회 등 외부 회원들이 총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결과 보고

- ◆ 제22회 속기학술세미나가 라테나 리조트(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74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정상덕 스마트속기협회 이사, 윤진훈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14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2014년 10월 22일~24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경식·이동준·손석련·김한우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50호 속기계(2014년 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23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 서울, 부산, 인천 등 18개 컴퓨터속기학원에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1주 동안 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22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7월 30일 국회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리얼타임 방식으로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속기 후 수정 시간 없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32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1위 이소영, 2위 김병효, 3위 손정아 씨가 입상하였습니다.
- ◆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업무 위탁 수행 - 국회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속기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했던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을 금년에는 본 협회에서 위탁받아 51개 지방의회, 80명 속기사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국회의정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 2014년 10월 9일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에 그동안 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속기자료 11점을 기증하였고 현재 5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회원동정

◇ 승진

- 김영중·문선희·홍은주(국회사무처)(2014.5.17)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속기사무관
- 이순영(국회사무처)(2014.8.12)
의정기록과 서기관→과장
- 정관(국회사무처)(2014.8.12)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
- 조영기(국회사무처)(2015.1.26)
의정기록과 서기관→부이사관
- 고경효(국회사무처)(2015.1.26)
의정기록과 서기관→과장
- 한순덕(국회사무처)(2015.1.26)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

◇ 입사

- 김민아·손아영·정은일·조지웅·최수미(국회사무처)
(2014.12.1.)

◇ 복귀

- 정순화(국회사무처)(2014.7.26)
- 손숙자(국회사무처)(2014.8.20)

◇ 퇴직

- 이승희(국회사무처)(2014.5.17)
- 손재욱(국회사무처)(2014.6.17)
- 백종인(국회사무처)(2014.12.15)
- 김란희(국회사무처)(2014.12.31)

◇ 공로연수

- 박정자(국회사무처)(2014.8.20~2015.6.29)
- 김학순(국회사무처)(2015.1.17~2015.6.29)
- 이경식(국회사무처)(2015.1.25~2015.12.30)
- 이주성(국회사무처)(2015.1.26~2015.12.30)

◇ 교육훈련 및 파견

- 간찬기(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2014.07.26~2015.07.25)
- 조영기(국회사무처)
국립한글박물관(2015.1.26~2016.1.25)
- 장미경(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5.1.26~2017.1.25)



공지사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2-0660-8195-21 농협 최혜연

연 락 처

총 무 부 02) 788-2373 김경재(총무부장)

02) 788-3428 최혜연(재정부장)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3418 권초롱(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3083 조윤희(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입니다.

자주자주 들러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51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조윤희(☎ 02-788-3083)에게 연락 주세요.